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8.1 (2017): 31-58.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SML) 운영 성과와 의미

권 기 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2017),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SML) 운영 성과와 의미」,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8(1), 31–58.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SML) 도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운영이 MERCOSUR 경제통합 발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SML을 도입한지 햇수로 10년이 지난 현재 SML의 성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SML을 활용한 무역거래도 아직까지 미흡하며 중소기업의 활용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이 SML의 도입 성과가 미진한 주요한 이유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의 거시경제의 불균형에 따른 SML 활용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입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의 미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만 운영되던 SML이 다른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SML 운영이 회원국간의 무역증대와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SML은 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상 분야도 단순 무역결제에서 투자나 송금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SML 도입과 운영을 통한 회원국 중앙은행간 협력과 국가지급결제시스템간의 통합은 MERCOSUR의 금융통합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어 남미공동시장, 역내무역, 지역지급결제시스템,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I. 서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도국간의 협력, 즉 남남(南南)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범위도 전통적인 협력수단인 무역에서 벗어나 통화 및 금융분야의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많은 개도국들은 지역차원의 통화 및 금융협력을 글로벌 경제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통화 및 금융협력 움직임 중에서도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Regional Payment System: RPS)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개도권 지역 중에서는 중남미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존 중남미통합연합(LAIA)의 상호지급신용협정(CPCR) 이외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SML),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의 지역청산통합시스템(SUCRE), 중미통합체제(SICA)의 중미지급결제시스템(SIP)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속속 등장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MERCOSUR의 SML은 시스템 운영의 단순성과 신속성, 중소기업의 무역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범 당시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해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한 개도국간 경제통합체의 대표적인 사례다.[1)]

MERCOSUR은 출범이후 역내무역의 확대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으나 1998년 이후 회원국에서의 연이은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통상분쟁으로 발전이 지체되어왔다. 특히 경제통합 성공의 대표적인 척도로 평가되는 역내무역 의존도가 1998년을 정점(25%)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에는 15%에 머물렀다.

1) 베네수엘라는 2012년 7월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으나 이후 공동관세 적용 등 회원국 자격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6년 말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ERCOSUR 원년 회원국인 4개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MERCOSUR의 양대 중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8년 침체된 역내무역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SML을 도입했다.

2017년은 MERCOSUR의 SML이 도입된 지 햇수로 10년이 되는 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SML의 성과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ERCOSUR의 SML 도입 10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SML 운영이 MERCOSUR의 경제통합 발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SML의 운영 성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회원국간 무역거래에서 SML의 활용도와 중소기업의 참여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또한 SML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중남미통합연합(LAIA)의 상호지급신용협정(CPCR),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의 지역청산통합시스템(SUCRE) 등 기존 다른 중남미 경제통합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은 Caldentey et

2) MERCOSUR의 SML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Lucangeli(2008), Fritz et al.(2010), Pinto et al.(2011), Sabater(2012), Reiss(2012), Caldentey et al.(2013), Cavalcante(2015)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Lucangeli(2008)는 SML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태동한 점을 주목하고 SML이 양자 교역을 활성화시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Fritz et al.(2010)은 SML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한 제도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Pinto et al.(2011)는 SML 활용 비중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현재 자발적인 SML의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면 활용도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Sabater(2012)는 SML이 거래비용 감소, 환율 불확실성 축소 효과로 회원국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르헨티나-브라질간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활용비중이 낮아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Reiss(2012)은 SML 출범이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중남미지역에서 대외유동성문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고 지지부진한 MERCOSUR 경제통합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Caldentey et al.(2013)는 중남미통합연합(LAI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국간무역결제시스템을 비교분석했다. Cavalcante(2015)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상이한 거시경제 상황이 SML의 발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브라질은 외환보유고가 풍부한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가능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브라질 기업보다 아르헨티나 기업의 SML 활용 동기가 크다고 보았다.

al.(2013)이 국제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목적으로 제시한 외환사용의 절약, 거래비용 감축, 리스크 축소 3가지에 초점을 둔다.

이상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중남미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 사례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회원국 중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SML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SML 운영 메카니즘과 운영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SML과 다른 중남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MERCOSUR의 통합발전과정에서 SML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Ⅱ.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중남미 지역에서 운영 현황

1.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

일반적으로 지급결제란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급결제시스템이란 이러한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규칙 및 절차, 표준, 기술적 수단으로 구성되는 하부구조를 의미한다(채희율·이영섭 2004, 7).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RPS)은 역내 기업간 무역 거래 시 자국화폐로 결제를 함으로써 거래비용 감축의 효과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Fritz et al. 2010, 3).

Chang(2000, 3)에 따르면 거래비용의 감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무역거래 시 대차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를 함으로써 거래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청산기간 만료 시에 결제를 함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을 역내국 중앙은행에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은 역내 무역거래 시 교역조건을 개선시키

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한편 RPS가 역내 무역거래 비용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총액결제와 순차액결제[3]간의 차이와 청산기간의 길이이다. 일반적으로 총액결제와 차액결제간의 차이가 클수록, 차액결제의 청산기간이 길수록, 역내무역에서 거래비용 감축 효과가 크다. 둘째, 중앙은행간 최종 청산 및 결제의 통화가 무엇이냐이다. 중앙은행이 국제화폐(달러나 유로 등)나 회원국의 자국 화폐로 최종 청산 및 결제를 할 경우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중앙은행이 무역거래에 필요한 외환의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용의 제공 여부이다. 크레딧 라인(credit line)이나 중앙은행간 스왑협정을 통해 적자국에 추가적인 신용이 공여될 경우 거래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크레딧 라인의 금리 수준이 중요하다. 크레딧 라인에 부과되는 금리 수준이 낮을 경우 적자국은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보다 이득을 볼 수 있다(Fritz et al. 2010, 4).

RPS는 또한 지역차원에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성이 크다. 역내무역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순최종결제가 자국화폐로 이루어지고 신용이 제공될 경우 적자국은 보다 많은 거래비용 감축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RPS는 지역차원에서 무역균형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별국의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근린궁핍화정책을 예방할 수 있다(Fritz et al. 2010, 4).

RPS는 더 나아가 역내 통화협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역내 통화협력은 지역통화기금 창설이나 지역차원의 회계단위(unit of account) 도입을 통해 심화될 수 있다.

Caldentey et al.(2013, 11-15)은 다자간 지급결제시스템 도입의 목적을 크게 2가지로 본다. 먼저 외환사용의 절약이다. 협정 체결국들은 청산(보상) 메카니

3) 지급결제시스템은 지급결제의 처리방식에서 볼 때, 건별 총액기준으로 처리하는 총액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에서 일괄하여 은행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처리하는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채희율·이영섭 2004, 7).

즘의 도입과 자국 및 지역화폐 사용의 촉진을 통해 외환사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앙은행간 협정을 통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지급결제청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무역거래 시 순차액만을 결제함으로써 외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업자들의 무역 거래 시 자국화폐나 지역차원의 공동화폐 사용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외환사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거래비용 및 위험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먼저 거래비용의 감축은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행정비용의 축소와 무역거래 기간의 단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무역거래 시 기업들이 항상적으로 겪는 환율 변동성의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신용 리스크는 수출업자와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제도 도입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는 협정국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 비상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2. 중남미 지역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현황

1) 중남미통합연합(LAIA)의 상호지급신용협정(CPCR)[4)]

CPCR은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중남미통합연합(LAIA)[5)]의 전신인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은 1966년 역내 회원국간 무역확대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간청산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 참여국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9개국이었다. 이후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가입하고 1973년 도미니카공화국이 가세하면서 참여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 LAFTA가 LAIA로 발전적 해체를 하면서 1982년 8월 새롭게 CPCR를 출범시켰다. CPCR의 기본 목표는 △회원국간 금융협력 촉진, △역내 무역 원활화, △금융, 환율 및 지급결제분야에서 회원국간 체계적인 상호협력이다. 그밖에 CPCR은 △지급결제 거래 활성화 및 회원국간 경제관계 강화, △회원국간 외환거래(이동) 감축, △역내 금융기관간 협력 확대

4) CPCR: Convenio de Pagos y Creditos Reciprocos
5) 스페인어 명은 ALA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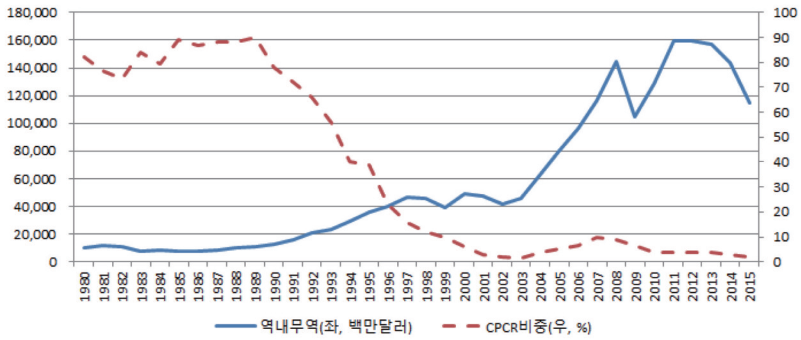
를 목표로 한다(ALADI 2013, 7).

CPCR에서 회원국간 결제는 다자간 형태로 진행되며, 차액은 4개월마다 달러로 청산한다. CPCR에서는 일반 무역거래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신용장제도를 통해 무역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결제만 청산방식을 이용한다. 또한 각국별로 일정한 크레딧 라인을 설정하고 해당국가의 청산은행은 그 범위 내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CPCR은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 위기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부족할 당시 인기가 높았다. 그 결과 1980년대 CPCR를 통한 역내 교역 비중은 평균적으로 전체 역내 교역의 90%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CPCR을 통한 역내교역은 크게 감소했다. 그 이유는 다음 2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1990년대 중반이후 역내무역이 크게 팽창하면서 역내무역 규모와 CPCR을 통한 크레딧 라인의 갭이 커졌다. 당초 회원국들은 무역거래 시 무역대금의 사후 결제가 가능하고 외환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간 크레딧 라인을 개설했다. 그러나 역내무역이 급증하면서 양자간 합의된 크레딧 라인의 규모가 역내무역 거래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CPCR 내에 설정된 크레딧 라인의 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크레딧 라인의 규모는 2000년 27.9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8.3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1년 기준으로 CPCR 내에 설정된 크레딧 라인이 커버하지 못하는 무역거래는 전체 거래의 30%에 달했다. 둘째, 사전결제가 크게 증가했다. 즉 4개월의 청산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인 결제가 이루어졌다. 사전결제는 1980년대 말 총 결제에서 10% 미만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중순에는 90%이상에 달했다. 사전결제의 증가로 역내 무역결제 수단으로써 CPCR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이처럼 사전결제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국제자본시장의 금리와 CPCR의 크레딧 라인이 제공하는 금리차가 커졌기 때문이다(Caldentey et al. 2013, 41-43).

그 결과 LAIA 역내무역에서 CPCR 활용 비중은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0년대 한자리수대로 떨어진 CPCR의 활용도는 2015년에



〈그림 1〉 LAIA 회원국의 역내무역과 CPCR 활용도 추이

주: 활용도는 역내무역에서 CPCR을 통한 거래 비중을 의미
자료: ALADI(2016, 20).

〈표 1〉 CPCR의 외환사용 절약, 사전결제 및 금리 비교

연 도	외환사용 절약 (백만달러)	사전결제 (백만 달러, %)	CPCR 제공 금리 (%, 단순평균)	국제자본시장 금리(%)
2000	1,605	1,542(47.2)	7.57	6.00
2001	632	731(49.6)	4.83	3.48
2002	258	524(57.0)	2.84	1.64
2003	174	407(57.9)	2.22	1.03
2004	169	1,913(79.6)	2.64	1.40
2005	189	3,410(83.0)	4.58	3.22
2006	220	5,361(83)	6.21	4.85
2007	253	10,370(86)	6.29	4.18
2008	341	11,506(91)	4.04	1.40
2009	229	6,376(86)	1.88	0.15
2010	223	4,467(86.4)	1.40	0.14
2011	199	50,120(86)	1.39	0.05

자료: Caldentey et al.(2013, 43)

는 역대 최저 수준(1.9%)으로 하락했다.

2)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의 지역청산통합시스템(SUCRE)[6)]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좌파 경제블록인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

6) SUCRE: Sistema Unitario de Compensacion Regional

(ALBA)"은 2009년 4월 지역청산통합시스템(SUCRE)을 도입했다. SUCRE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회원국간의 교역증대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초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4개국으로 출발해 니카라과가 가세하면서 현재 참여국은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SUCRE는 첫 단계로 국내화폐 사용을 통한 역내무역 거래 비용의 감축을 도모하고 무역거래의 지연결제(delayed settlement)를 통해 외환 사용의 절약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역내 무역거래에서 달러 사용의 배제를 도모하였다(Fritz and Muhlich 2014, 26).

SUCRE는 자발적인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국내나 국제화폐로 무역의 순차액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회원국들은 당초 지역신용기금과 SUCRE를 통한 역내무역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정 메카니즘의 도입을 계획했으나 이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ALBA 회원국들은 역내무역거래에서 달러를 대신할 지역회계단위, 즉 sucre(XSU)를 도입했다. sucre는 물리적 형태의 화폐가 아니라 중앙은행 차원에서 역내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회계의 단위다.

sucre는 달러나 유로화 대비 환율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ucre화의 안정성은 국내화폐의 대외가치 변동에 따라 통화 바스켓에서 각국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통화의 비중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2011년 달러대비 니카라과 코로도바화의 환율은 5% 평가절화된데 반해 sucre화는 0.15% 평가절하에 그쳤다(SUCRE 2016, 14-15).

2010년 1월 27일 운영을 개시해 2015년 말까지 총 6,814건이 sucre화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총 거래규모는 24.8억 sucre(30.9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 10.6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던 SUCRE 거래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3.4억 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 거래건수도 2,646건에서 752건으로 크게 줄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별로는 에콰도르-베네수엘라간 거래가 전체 거래의 80.5%를 차지해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볼리비아-베네수엘라간 거래가 10.7%, 니카라과-베네수엘라간 거래가 6.8%, 쿠바-에콰도르간

〈표 2〉 SUCRE를 통한 회원국간 무역거래 금액 및 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백만 sucre)	10	216	852	727	399	277
금액(백만 달러)	13	270	1066	909	497	345
거래건수	6	431	2,646	2,094	884	752

자료: SUCRE(2016, 17)

거래가 2.1%, 쿠바-베네수엘라간 거래가 0.01%를 차지했다.

3) 중미지급결제시스템(SIP)[7]

중미지급결제시스템(SIP)은 역내 전자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금융 및 은행분야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중미 국가 중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다. SIP는 중남미 다른 지급결제시스템과 달리 역내 무역확대나 지역차원의 통화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SIP는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현대화 촉진을 통해 거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가간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Fritz and Muhlich 2014, 28).

2011년 공식 출범한 SIP는 회원국 경제주체들간의 이전과 청산의 안전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SIP 운영상의 흥미로운 점은 모든 운영을 하나의 기관(현재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에 집중함으로써 역내 거래비용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거래에 국한된 LAIA의 CPCR, MERCOSUR의 SML과 달리 SIP는 송금 등 모든 거래를 포괄한다.

III. MERCOSUR의 SML 도입 배경

MERCOSUR에서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SML)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2008년 10월 3일부터 양국간 무역거래 시 자국통화를 사용해 결제를 시작하면서 본격 개시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브라질과 우루과이간에 SML이 도

7) SIP: Sistema de Interconexion de Pagos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도입의 역사〉

- (1999)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 단일통화 도입 주장 - (2003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로 단일통화 도입 공감대 형성 - (2006. 7) 단일통화의 첫 단계로 자국통화 무역결제시스템 도입 제안 - (2008. 10)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SML 도입 - (2014. 12) 브라질-우루과이 간 SML 도입 - (2015. 6) 아르헨티나-우루과이 SML 합의 - (2015. 10) 우루과이-파라과이 SML 합의 - (2016. 4) 브라질-파라과이 SML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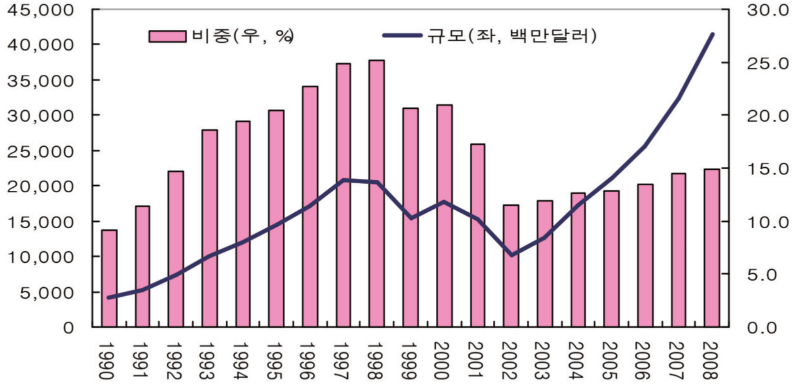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입되었으며, 2015년 6월에는 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도 SML 거래가 개시되었다. 2015년 10월에는 역내 약소국인 우루과이-파라과이간에도 SML이 도입되었으며, 2016년 4월에는 브라질-파라과이간에 SML 도입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었다. 그 결과 2017년 2월말 현재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간 무역거래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간 무역거래에서 SML이 도입되었다.

MERCOSUR 회원국들이 SML을 도입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무역 확대다. 회원국들은 무역결제 절차의 간소화 및 금융비용 감소로 무역거래비용이 3-4% 절감되어 무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자국통화로 무역거래를 함에 따라 환위험이 제거되고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낮아져 회원국간 무역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희망했다(권기수 2009, 2).

실제로 MERCOSUR 회원국들이 SML을 도입할 당시 역내무역은 크게 침체되어 MERCOSUR 앞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팽배했다.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한 MERCOSUR의 역내 수출은 관세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초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신흥시장 금융위기 직전인 1998년 역내수출 비중은 25%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경제위기와 회원국 간 통상 분쟁 등의 여파로 역내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2003년 이후 회원국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역내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비중은 2008년 15%에 그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MERCOSUR 역내무역 확대의 주요 방안으로 회원국



〈그림 2〉 MERCOSUR 역내 수출 비중 추이

자료: 아르헨티나 국제경제센터(CEI), 권기수(2009, 8)에서 재인용

간 무역거래 시 자국화폐 사용이 대두되었다. 특히 당시 "페소-헤알 거래를 위한 저렴한 금융수단의 부재로 높은 무역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이 같이 높은 무역거래 비용이 MERCOSUR 회원국 간의 무역, 특히 중소기업의 교역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는 실증적 연구 결과[8]는 자국화폐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다(권기수 2009, 7-8).

둘째, 중소기업의 교역 활성화다. 무역거래 비용 감소, 외환거래 어려움 해소 등에 힘입어 그간 무역거래를 기피해온 중소기업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MERCOSUR를 비롯한 중남미에서 중소기업은 고용 및 매출 등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SML을 도입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중소기업은 총 고용의 40% 이상을, 총 매출의 41%와 26%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높은 위상에 비해 이들 기업이 교역에 참여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SML을 통한 거래비용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확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고용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8) Borba and D'Orio(2007).

〈표 3〉 중남미 각국의 공식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상(단위: %)

국 가	고 용	매 출
아르헨티나	43.6	41.0
브라질	42.6	25.9
칠레	21.2	18.3
콜롬비아	32.0	17.1
에콰도르	24.0	15.9
엘살바도르	27.7	34.3
멕시코	30.8	26.0
페루	11.9	27.0
우루과이	47.0	-

자료: CEPAL(2011), Caldentey et al.(2013, 44)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MERCOSUR 금융통합의 진전이다. 수출입업자들이 달러화 대신 회원국 화폐 사용에 친숙해지고 헤알-페소 환율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MERCOSUR의 단일통화 도입 등 금융통합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MERCOSUR에서 SML의 도입과 운영은 단일통화 도입 등 금융통합 논의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일통화 도입 논의는 1999년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이 공동통화로 달러화 채택을 주장하면서 시발되기는 했으나, 통화주권 상실을 우려한 브라질 반대로 구체화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회원국간 환율제도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고 회원국간 환율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단일통화 도입에 대한 회원국간 컨센서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특히 MERCOSUR 공동통화 도입 논의는 2003년 1월 14일 룰라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2003년 6월 제24차 MERCOSUR 정상회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간 합의수준에 머물렀던 공동통합 도입 논의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등 회원국 모두에게 동의를 얻으면서 급진전되었다. 그러나 회원국간 관심 부재로 잠시 주춤했던 단일통화 도입 논의는 2006년 7월 개최된 MERCOSUR 정상회담에서 단일통화 도입의 첫 단계로 무역대금 결제시 자국통화 사용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본격화되었다. 2007년 5월 개최된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CMC) 특별 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에 시범적으로 무역결제 시 자국통화를 사용할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07년 6월 개최된 MERCOSUR 정상회담에서는 아르헨티나-브라질간에 논의되고 있는 자국화폐 사용 방안을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나머지 회원국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권기수 2009, 6-7).

IV. SML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중남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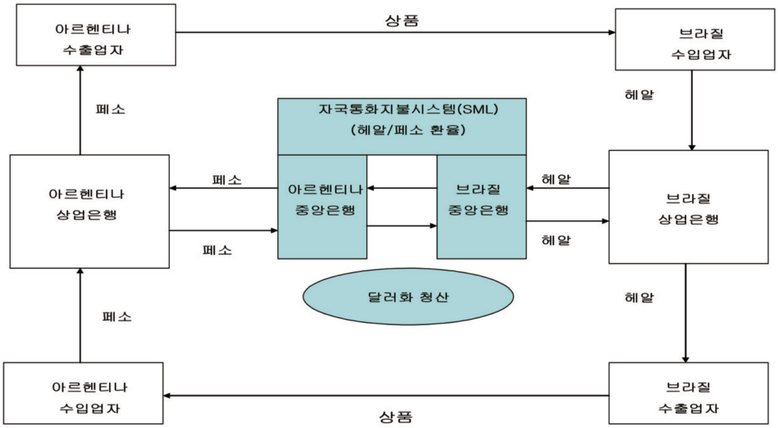
1. SML의 운영 메카니즘[9)]

먼저 SML은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수출입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SML은 현재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적·선택적 성격이 강하며 가치 이전과 청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는 없다.

둘째, SML은 환위험을 책임지지 않는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SML의 규제와 감독을 맡으며 양국간 무역거래의 청산결제은행으로서 역할만을 수행하지 상호신용위험을 책임지지는 않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또한 해당국 지정은행의 신용위험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은행간 청산결제는 예외다. 각국 중앙은행간의 일일 거래결과는 청산수단을 통해 미국 달러나 중앙은행 간에 사전 합의된 통화로 청산한다. 그러나 일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는다. 즉 채무국 중앙은행이 채권국 중앙은행에 당초 일정에 맞추어 최종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채무국 중앙은행은 120일 기간 내 동일한 금액을 4회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셋째, 양국간 SML 거래를 통한 수출입 차액은 달러로 청산된다. 국내결제는 지정은행이 자국통화로 결제하고 국가간 결제는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로 결제한다. 중앙은행간 결제는 뉴욕의 국제결제은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

9) SML의 운영 메카니즘은 권기수(2009, 3-5)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그림 3〉 SML을 통한 무역결제 흐름도

자료: 권기수(2009, 4)

대 청산기간은 3일이나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넷째, SML 환율은 양국 중앙은행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양국 간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헤알/페소 환율은 양국 중앙은행의 기준 환율(브라질: 헤알/달러, 아르헨티나: 페소/달러)로 결정되며 중앙은행은 매일매일 기준 환율을 공시한다. 그러나 지정 금융기관과 수출입업자가 합의하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중은행이 정한 헤알-페소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SML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금융기관과 수출입업자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한다. 중앙은행은 분쟁이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섯째,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어려울 경우 SML 거래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자연 재해, 갑작스런 정치 · 사회 · 경제 · 금융 사건으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의 중앙은행은 SML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국 중앙은행에 문서로 SML 중단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채무국 중앙은행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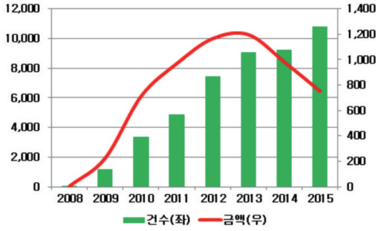
SML 운영은 중단될 수 있다.

일곱째, SML의 운영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앙은행과 각국의 지정 은행에서 담당한다. 2017년 2월 말 현재 브라질에서는 22개 은행, 아르헨티나에서는 26개 은행이 SML 지정은행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SML을 통한 무역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첫째 날 아르헨티나 수입업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찾아가 SML로 무역거래를 등록한다. 여기서 무역거래는 수출국의 국내 화폐(예: 브라질 헤알화)로 등록된다. 지정 금융기관은 거래 당일의 페소-헤알 환율이나 당일 종가로 발표되는 SML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등록 거래를 취합 분류해 해당국 은행에 알린다. 오후 6시 직후 당일 SML 환율이 고시된다. 여기서 SML 환율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페소/달러 기준 환율과 브라질 중앙은행의 헤알/달러 기준 환율에 근거해 정해진다. 오후 7시 경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전자지급결제수단(MEP)을 통해 지정 금융지관이 지급해야 할 페소화 규모를 통보한다. 둘째 날, 오전 8시에서 12시 사이에 지정 금융기관은 전날 MEP를 통해 공시된 거래를 결제해야 한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수입거래가 완료되고 미지급 거래는 배제되어 브라질 중앙은행에 통지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브라질 수입업자와 관련된 동일한 절차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SML 환율에 근거해 상환해야 할 순차액이 산정된다. 셋째 날, 순차액에 대한 중앙은행간의 달러 결제가 뉴욕에서 이루어지며, 지정 금융기관은 자국 화폐로 무역거래 대금을 수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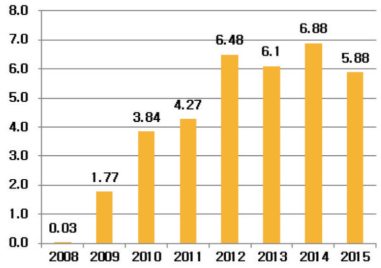
2. SML 운영을 통한 무역거래 성과

여기서 SML의 운영 성과는 당초 회원국들의 기대를 반영해 크게 무역확대 효과와 중소기업의 교역참여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무역 측면에서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효과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매우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수출성과를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의 제약[10]으로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을 기준으



〈그림 4〉 SML 건수 및 금액 추이: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단위: 건, 억 달러)
자료: 브라질중앙은행(www.bcb.gov.br)



〈그림 5〉 SML 비중: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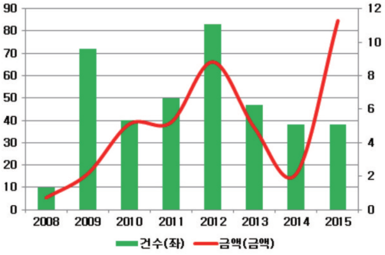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브라질중앙은행(www.bcb.gov.br)

로 성과를 고찰해본다. SML을 통한 수출거래 건수는 2009년 1,163건에서 2015년에는 1만 788건으로 연평균 44% 증가했다. 수출액은 2009년 2억 3,000만 달러에서 2013년 11억 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에는 7억 5,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그 결과 2009-2015년 기간 수출은 연평균 22% 증가했다. 이 같은 빠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총 수출에서 SML을 통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8%에서 2014년 6.9%로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5.9%로 소폭 하락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SML을 통한 수출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입측면에서의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먼저 SML을 통한 수입거래 건수는 2009년 72건에서 2015년에는 38건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수입액은 2009년 215만 달러에서 2015년 1,128만 달러로 연평균 32% 증가했다. 거래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건당 수입규모가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SML을 통한 수입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0.02%에서 2015년 0.1%로 소폭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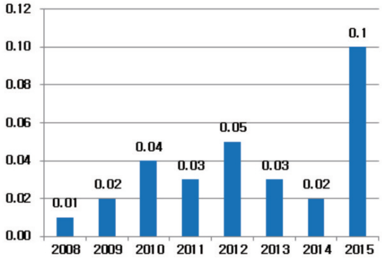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SML

10) 브라질 중앙은행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의 SML을 통한 무역거래 통계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간헐적으로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일부 통계를 제공한다.



〈그림 6〉 SML 건수 및 금액 추이: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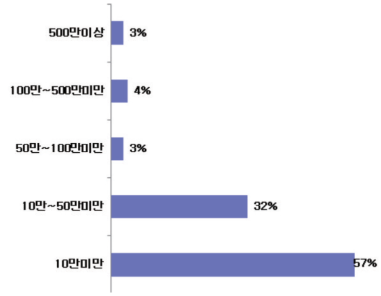
(단위: 건, 억 달러)
자료: 브라질중앙은행(www.bcb.gov.br)



〈그림 7〉 SML 비중: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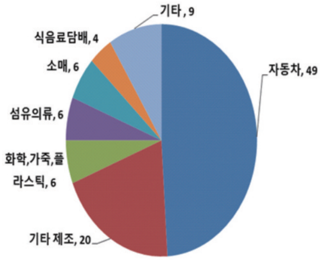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브라질중앙은행(www.bcb.gov.br)

활용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SML을 활용한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특징은 수출입 거래 규모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SML 운영 초기인 2008년 10월에서 2009년 4월 기간 거래 규모별로는 50만 페소(13만 달러) 미만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에 달했다. 기간을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2009-2012년 기간 5만 달러 미만의 거래가 46%, 5만-50만 달러의 미만 거래가 46%에 달했다. 즉 50만 달러 미만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92%에 달했다. 50만-1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비중은 각각 4%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 거래는 대기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많은 경우 기업간 거래의 성격을



〈그림 8〉 거래 규모별 SML 활용 비중

(단위: 페소, 08.10~09.4))
자료: 아르헨티나중앙은행(www.bcra.gov.ar)



〈그림 9〉 산업별 SML 활용 비중

(단위: 16년 1분기, %)
자료: 아르헨티나중앙은행(www.bcra.gov.ar)

띠었다(Caldentey et al. 2013, 37).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거래의 특징(2016년 1분기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동차가 전체 거래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뒤를 화학, 섬유의류, 가죽, 플라스틱 등이 이었다.

3. SML 운영에 대한 평가

먼저 SML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MERCOSUR 경제통합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다. SML은 관세동맹체제하에서 무역확대를 위해 양자간 관세인하보다는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 도입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관세동맹단계인 MERCOSUR는 대외공동관세의 예외가 많기로 유명하다. 이에 따라 역내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동맹의 공고화가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협상은 수많은 이해단체와 로비세력의 반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ML 도입을 통해 무역거래 비용을 감축하고 환리스크를 축소해 무역을 확대한다는 시도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Reiss 2012, 8-9). Bauman and Mussi(2011)는 중남미 국가들 간의 대외경제정책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SML 도입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SML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난 현재 SML을 통한 무역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SML을 통한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수입)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수출(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입)은 매우 미미한 비대칭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가 SML을 도입하면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던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효과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11)]

11) 일각에서는 SML의 도입 취지가 회원국 간 무역거래를 SML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SML의 성과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만 운영되던 SML이 다른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SML 운영이 회원국간의 무역증대와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ML을 한번 이상 이용한 기업이 65%에 달할 정도로 SML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Fritz et al. 2010, 16).

현재 SML은 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상 분야도 단순 무역결제에서 투자나 송금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SML 도입과 운영을 통한 회원국 중앙은행 간 협력과 국가지급결제시스템의 통합은 MERCOSUR의 금융통합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SML이 MERCOSUR 회원국간 무역확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SML 활용에 대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기업의 상이한 입장의 극복이다. 먼저 아르헨티나 기업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입기업과 수출기업의 입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부족으로 국가 디폴트 사태를 겪는 등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 부족으로 수입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르헨티나 수입업자들은 자국화폐를 통한 무역거래인 SML의 활용에 적극적이었다. 실제로 이는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즉 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2000년대 초반 페소화 평가절하 여파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아르헨티나 수출업자들은 페소화 결제보다는 달러화 결제를 선호했다. 그에 따라 아르헨티나 수출업자들이 SML을 사용할 동기는 수입업자들에 비해 크게 적었다. 아르헨티나에 비해 비교적 외환사정이 양호했던 브라질 기업들의 경우 아르헨티나 기업들에 비해 SML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 그에 따라 브라질 기업들의 SML 활용은 아르헨티나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간 거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이 SML 활용에 대한 양국 기업의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양국 거시경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힘입어 외환사정이 양호한 브라질 기업들과

지속적인 거시경제 혼란으로 외환사정이 어려운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처한 상황의 차이가 SML 활용의 비대칭적 특징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SML 활용률 제고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초 SML 도입의 목표와 달리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SML 활용도는 매우 미흡하다. 이 같이 중소기업의 SML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낮은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 같이 무역경험이 일천하거나 전무한 중소기업들의 SML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해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들이 무역에 관심을 갖고 SML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 제공 등의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

그밖에 SML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및 이해부족, 회원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무역 감소, MERCOSUR 제도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 부족도 SML 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들(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SML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SML과 다른 중남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중남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비교는 CPCR, SML, SUCRE 3개의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SIP는 단순 전자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은 Caldentey et al.(2013)이 국제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목적으로 제시한 외환사용의 절약, 거래비용 감축, 리스크 축소 3가지를 중심으로 한다.

첫째, 외환사용 절약이다. 여기서 외환사용의 절약은 주로 참여국 금융기관(중앙은행) 간 외환의 실질적인 이전의 감축을 의미한다. 외환사용의 절약은 비교대상 3개의 결제시스템 모두에서 역내무역 촉진을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다.

먼저 CPCR은 회원국 중앙은행간 자발적인 협정을 통해 상호 크레딧 라인과 다자간청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크레딧 라인의 규모는 회원국 간 무역

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진다. 다자간청산시스템의 경우 4개월마다 각국 중앙은행이 회원국간 무역거래의 순차액에 대해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차액은 달러로 청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CPCR은 중앙은행 간 청산을 담당하는 대표금융기관으로 페루 중앙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CPCR과 마찬가지로 SML도 양자간청산시스템을 통해 외환의 이전을 줄이고 있다. SML의 청산시스템은 무역거래의 순차액에 대해서만 최종결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CPCR과 매우 유사하다. SML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중앙은행은 대리은행(지정 금융기관)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SUCRE도 외환절약 기능을 갖고 있다. SUCRE에서 무역거래 순차액에 대한 청산은 반년마다 공동의 회계단위인 sucre로 이루어진다. 특히 SUCRE의 경우 회원국 중앙은행 간의 청산활동은 반년마다 중앙청산기구(CCC)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SML의 경우 수출업자는 무역거래를 위해 외환시장에 관여하지 않는다. 수입업자는 수출국 화폐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국화폐로 결제한다. SUCRE의 경우도 수출입업자가 외환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자국화폐로 거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SML과 같다.

둘째, 거래비용 감축이다. 거래비용 감축은 환율의 불확실성, 즉 환율의 변동성 축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먼저 CPCR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화폐를 달러화로 즉각적으로 태환하고 이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SML의 경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거래는 수출국의 통화로 이루어지며 수출업자는 자국화폐로 수출대금을 받는다. SML에서 수출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환시장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경우는 다르다. 수입업자(예: 아르헨티나 수입업자)의 경우 거래가 수출업자의 화폐(예: 브라질 헤알)로 결제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자국 화폐인 페소화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국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표 4〉 SML과 중남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비교

비교 항목		SML	CPCR	SUCRE
외환사용 절약		○	○	○
거래비용 감축	환율 불확실성 제거	○	○	○
리스크 감축	신용 리스크		○	
	유동성 리스크	○	○	○

자료: 저자 작성

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SML은 실시간결제 및 협정에 명시된 환율로 거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SUCRE의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환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SUCRE 시스템에서 모든 거래의 등록, 결제 및 청산은 공동의 회계단위인 sucre(XSU)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sucre 환율은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그 가치는 통화바스켓을 통해 도출된다. sucre 통화바스켓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가 58%, 에콰도르 달러화가 24%, 쿠바 페소화가 12%, 볼리비아의 볼리비아노화가 6% 순으로 구성된다(Caldentey et al. 2013, 24). 여기서 환율의 안정은 환율의 갑작스런 변동이 발생할 경우 sucre대비 각국 통화량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리스크 감축이다. 여기서 리스크 감축은 신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 리스크(credit risk)는 채무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에 빠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간의 자발적인 상호협정에 토대를 두고 있어 신용 리스크를 수반한다. CPCR의 경우 상호간의 신용 리스크는 상환보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부담한다. 상환보증을 통해 중앙은행은 회원국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책임진다. CPCR에서와 달리 SML과 SUCRE에서는 중앙은행이 신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는 채무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의 유동성 포지션이 나빠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규정으로 중앙은행이 무역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외환부족으로 중앙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 간 협력제도를 두고 있다. CPCR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중앙은행이 최종지급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지급결제자동프로그램(PAP)에 따라 4회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자(4개월 물 리보금리+2%)를 물어야 한다. SML의 경우도 유동성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일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당초 일정에 맞추어 최종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20일 기간 내 동일한 금액을 4회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상환 규모는 1억 2,0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CPCR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급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4개월 물 리보금리+2%)를 지불한다. SUCRE의 경우도 지역통화위원회(CMR)를 통해 유동성 리스크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V. 결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개도국간 지급결제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외환사용의 절약, 거래비용 감축, 환리스크 축소 등을 통해 역내 무역의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관세 및 비관세 인하를 통한 전통적인 무역 확대 조치와 구별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지역에서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차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인기가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MERCOSUR의 SML은 시스템의 운영의 단순성과 신속성,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부터 획기적이며 신선한 대안으로 크게 주목 받았다.

그러나 SML을 도입한지 햇수로 10년이 지난 현재 SML의 성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평가다.[12] SML을 활용한 무역거래도 아직까지 미흡하며 중소기업의 활용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SML의 도입 성과가 아직까지 크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의 거시경제의 불균형에 따른 SML 활용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입장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SML 참여 인센티브 부재, SML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부족 등도 SML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남미 다른 지급결제시스템과 SML을 비교해본 결과, SML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가장 단순하고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지급결제시스템인 CPCR의 경우 한때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면서 활용도가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3개 비교대상 시스템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SUCRE의 경우 중심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의 미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만 운영되던 SML이 다른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SML 운영이 회원국 간의 무역증대와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SML은 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상 분야도 단순 무역결제에서 투자나 송금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SML 도입과 운영을 통한 회원국 중앙은행간 협력과 국가지급결제시스템간의 통합은 MERCOSUR의 금융통합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MERCOSUR 회원국의 정치경제 혼란의 지속과 이에 따른 거시경제 불균형, SML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부재, 각 회원국 정부의 적극

12) 당초 브라질 정부는 SML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양국 간 1일 거래 규모의 10-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인 지원 부족 등을 고려할 때 SML이 MERCOSUR 역내 무역과 통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권기수(2009),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추진 현황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3, No. 42, pp. 1-9.

채희율·이영섭(2004), 「동아시아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 가능성 및 방안」, 한국금융학회 2004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발표 논문.

ALADI(2013), "Convenio de Pagos y Creditos Reciprocos: Aspectos Basicos", http://www.aladi.org/nsfaladi/convenio.nsf/2F867B10A3C9CD8183257D8900481CB1/$FILE/Convenio_de_Pagos_-_principales_aspectos_2013.pdf.

______(2014), "Cooperacion Financiera y Monetaria en la ALADI : Convenio de Pagos y Creditos Reciprocos", http://www.aladi.org/nsfaladi/convenio.nsf/2F867B10A3C9CD8183257D8900481CB1/$FILE/Cooperacion_Financiera_y_Monetaria_en_la_ALADI_-_marzo_2014.pdf

______(2016), "Convenio de Pagos y Creditos Reciprocos", http://www.aladi.org/nsfaladi/convenio.nsf/03C0639E52A2243803256BA600683F95/$FILE/ConvenioDePagos.pdf

Bauman, Renato, and Carlos Mussi(2011), "Cooperacao Monetaria e Financeira: o Que e Bom Para a Asia e Para a America Latina?",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1, No.1.

Borba(2007), L. and L. A. D'Orio(2007), "A new payment system's facility to improve Brazil-Argentina trade", Costa de Sauipe.

Caldentey, Esteban Perez, Daniel Titelman, Geordina Cipoletta Tomassian(2013), "Sistema de pagos transnacionales vigentes en America Latina", Serie Financiamento para el Desarrollo.

Cavalcante, Thiago(2015), "Vulnerabilidade Externa e Sistema Multilateral de Pagamentos: licoes de experiencia europeia do pos-guerra para o caso atual do Mercosul", XI Congresso Brasileiro de Historia Economica.

CEPAL(2011), "Eliminando barreras: El financiamiento a las pymes en America Latina", Carlo Ferraro(compilador), Santiago de Chile, Noviembre.

Chang, R.(2000), *Regional monetary arrangements for developing countries*, na, 2000.
Fritz, Barbara, Andre Biancareli, and Laurissa Muhlich(2010), "Regional Monetary Arrangements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Payment Systems", FMM Conference 2010, October 29.
Fritz, Barbara, and Laurissa Muhlich(2014),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UNCTAD project.
Lucangeli, Jorge(2008), "MERCOSUR: el impacto de la crisi financiera internacional", *Revista del CEI-Comercio Exterior e Integrcion*.
Pinto, Sanna, Luiz Fernando and Luciano Wexell Severo(2011), "O Sistema de Pagamentos em Moeda Local(SML) e suas potencialidades para Mercosul", *Boletim de Economia e Politica Internacional, Brasilia*, Ipea, 5.
Reiss, Daniel G.(2012), "Easing trade costs within Mercosul",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Sabater, Javier(2012), "Un Analisis Institucional del Sistema de Pago en Monedas Locales", *Informe de Economia e Instituciones*, No. 5.
SUCRE(2016), "Informe de Gestion 2015", http://www.supertransporte.gov.co/documentos/2016/Noviembre/Transparencia_30/Informe_RDC_3.pdf

권 기 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skwon@kiep.go.kr

논문투고일: 2017년 3월 5일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4월 13일

An Analysis on Performance of Local Currency Payment System(SML) in MERCOSUR

Ki-Su Kw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won, Ki-Su(2017), "An Analysis on Performance of Local Currency Payment System(SML) in MERCOSUR",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8(1), 31-5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Local Currency Payment System(SML) in MERCOSUR over the last decade and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MERCOSUR. The findings show that implementation results of SML have not been substantial in terms of expansion of intra-regional trade and increase in SMEs' trade. This has been mainly attributable to difference in position of both countries' companies resulted from macroeconomic imbalances in Argentina and Brazil. Albeit being a very limited experience between Argentina and Brazil, some positive effects of SML will contribute to increase in intra-regional trade and financial integration in MERCOSUR.

Key words MERCOSUR, Intra-Regional Trade, Regional Payment System, Local Currency Payment System(SML)